

## 지자체의 혁신 거점 조성 사업 활발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2018. 4. 4.

인천시 도시재생과  
2018. 4. 16.

충청남도 공동체새마을정책관  
2018. 4. 22.

### 서울시, 혁신기능 집적 단지 '서울혁신파크 혁신 단지' 개소

서울시는 최근 청년, 문화, 교육, 환경, 자원순환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다루는 혁신 단체가 입주하여 자유롭게 네트워킹이 가능한 서울혁신파크\* 내 혁신 단지의 개소 소식을 알렸다.

시는 기존에 운영 중인 청년청·미래청·서울혁신파크 일대에 ▲상상청(사회혁신 실험 공간, 글로벌 협력 공간) ▲공유동(공간 조직 지원, 다목적 공유 공간) ▲연결동(네트워크 공간) ▲연수동(연수·숙박시설) 4개 동을 새롭게 조성하여 확대·운영한다.

시는 이들 공간을 활용해 에너지, 자원 순환, 식문화, 옥상 공유 등 4대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전국 최초로 서울시 차세대 성평등 활동가·단체를 지원하는 '성평등 활동지원센터'와 청소년 진로 특화 지원 기관인 '은평 청소년 미래 진로센터'가 입주할 예정이다.



서울혁신파크와 새롭게 조성된 혁신 단지

자료: 서울시(2018), "서울혁신파크, 혁신기능 집적 단지 개소... 도시실험 본격화", 4월 4일자 보도자료.

\* 본래 1962년부터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국립보건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 등으로 오랜 기간 사용되다가 공공기관 대규모 지방 이전을 계기로 2015년 4월부터 청년청, 미래청을 중심으로 서울의 난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서울혁신파크로 재조성

**상상플랫폼 조감도**

자료: 인천시(2018), "인천항에 버려진 폐창고가 문화 혁신공간으로 화려하게 변신한다", 4월 16일자 보도자료.



**인천시, 폐창고를 문화혁신공간 '상상플랫폼'으로 조성**

인천항의 폐창고가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공간, 영화·드라마 촬영지 등 문화·관광시설과 최첨단 4차 산업기반을 아우르는 문화혁신공간으로 조성된다.

폐창고는 지난 1978년 전국 곳곳에 곡물과 사료를 공급하기 위해 기둥과 내벽이 없는 단일 공간으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로 설치되어 40여 년간 운영되었다. 그러나 항만재개발계획에 따라 기능이 폐쇄되어 지난 2016년 4월부터 방치되어 왔다.

인천시는 이곳의 장소적 가치를 활용하여 문화혁신공간으로 재탄생시킬 방침이며, 국내외 방문객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앵커시설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충남도, '내포혁신플랫폼' 건축 추진**

충남 내포신도시에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모여 협업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혁신 거점공간 '내포혁신플랫폼'이 들어선다. 내포혁신플랫폼은 도내 중간지원기관 등의 교류·협력을 위한 사무공간이자, 오픈라운지·인큐베이팅룸 등을 갖추고 마을 활동가,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된다.

특히 혁신적인 공간 구성과 운영을 위해 서비스디자인 개념을 도입, 각 분야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건립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및 건축가들의 많은 참여를 도모하고자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설계공모 절차대행을 신청하였다.

도 관계자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진 사회문제에 국가와 지자체 주도의 문제 해결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내포혁신플랫폼 조성을 통해 중간지원기관과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사회혁신 거점공간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